

“다시 시작하자” 불 밝히는 에펠탑

국가에도기간 뒤 시민 의지 다져

학교 문 열고 관광지 영업 재개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프랑스 파리 테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파리 시민들은 좌절하기보다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테러 발생 이후 사흘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해 슬픔을 공유했지만, 16일부터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을 재개방하고 참혹한 테러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문화부는 16일 오후 1시(현지시간)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을 다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와 운동 시설, 공원과 이날부터 정상운영하며 파리 증권거래소는 추가 보안조치를 거쳐 평소와 같이 개장할 계획이다. 디즈니랜드는 18일부터 문을 연다.

이외에도 항공, 철도, 선박이 정상 운영되지만, 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수속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파리 내에서 시위와 집회는 이날 말까지 금지되며 학교 단위의 소풍 역시 22일까지 금지된다.



전투기 공습 발진

프랑스 전투기가 15일(현지시간) 극단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거점인 시리아 락카를 공습하기 위해 요르단 기지에서 발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 역시 테러 이후 좌절이나 공포를 말하기보다 연대(solidarite)를 언급하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들은 추모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연대와 용기를 강조했다.

테러 직후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이

폐쇄됐지만, 오히려 파리 여행과 관광은 테러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테러 직후 항공사, 유로 스타 측은 수수료 없이 프랑스행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의 승객은 예정대로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위협으로 한때 취소까지 논의됐던 잉글랜드-프랑스, 독일-네덜란드 축구 경기 역시 예정대로 오는 17일 진행되게 됐다.

/연합뉴스

테러 남 일 아닌 G20 “보고만 있지 않겠다”

터키 정상회의서 IS 테러 대응책 핵심 의제로 부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자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 “금번 테러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개발 및 기후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G20 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업무 오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반인륜적인 테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 프랑스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번 G20 정상회의에선 파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를 계기로 테러 대응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박 대통령도 G20 첫 공식일정인 업무오찬에 참석,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G20정상회의에서 정치적 문제가 공식 의제로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며, 주요국 정상들은 테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특별 공동성명을 16일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차원에서 정상 업무 만찬에 포함됐던 각종 공연 등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이미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60여개 국가들이 국가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면서 성공적인 신(新) 기후체제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의욕적인 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애초 오후 1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30분 정도 늦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간 양자회담 등 G20 참석 정상간 이번 파리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응 문제 논의가 긴밀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파리 폭발물은 ‘사탄의 어머니’ TATP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

재료 구하기 쉽지만 TNT 준하는 폭발력 가져

약 130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테러 범인들은 TATP(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Triacetone Triperoxide)라는 폭발물질을 사용했다. 질소가 쓰이지 않는 유기과산화물 폭발물의 대표격인 TATP는 1895년 독일인 과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16일 국방·대테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폭발물질은 1980년대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면서 악명을 얻기 시작했다.

1994년 발생한 일본행 필리핀항공 여객기 테러는 이 물질이 본격적으로 테러 행위에 악용되기 시작한 사례로 기록된다.

이 폭발물질이 사용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2월 ‘신발 폭탄테러범’ 리처드 리드가 여객기 안에서 사용하려다가 제압된 일이다. 이후에도 이 폭발물질은 2005년 런던 테러 때 다시 사용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TATP가 테러범들에게 자주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를 구하는 일이나 제조 과정이 다른 폭발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고성능 폭발물의 대표격인 TNT의 약 83%에 달하는 폭발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 폭발물질을 만드는 원료의 대부분은 생활용품점이나 화장품 판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구하기가 쉽다.

제조 과정이 쉬운 대신 TATP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별도의 기폭장치 없이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TATP를 만들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의 사례가 자주 보도돼 왔다.

이런 특성과 더불어 사용 초기에 폭발물 탐지장치로 탐지가 잘 안 됐다는 점 때문에, TATP는 ‘사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신형 검색대로 TATP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형 태의 TATP 검출장치도 개발돼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유방의 복심 소하

소하(蕭何, ~ B.C 193)는 한 고조 유방을 도와 한제국을 건설한 명신이다. 그는 유방과 동향인 강소성 패현 출신으로 장량, 조참, 진평 등과 함께 한나라의 개국공신이다.

소하가 오랜기간 재상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처세술 덕분이었다. 공성신퇴(功成身退), 공을 이루면 물러난다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한신이나 경포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는 패현에서 공조라는 하급관리직에 있었다. 유방은 사수 정장직에 있었는데 그가 유방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면서 둘은 친구가 되었다. 유방이 군사를 일으키자 가까이 참여했다. BC 208년 유방 군대가 함양에 입성했다. 많은 장수와 장병들이 재물과 미녀를 얻는데 혈안이 되었을 때 그만이 진나라의 법률과 문서 등을 정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미래에 대한

중에서 병력을 보충해 주었다”고 역설했다.

건국 후 한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정비했다. 함양에서 입수한 진나라 법령문서를 토대로 구장률(九章律)을 제정했다. 도률, 적률, 수률 등 법령집으로 한 왕조 400년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그가 유방에게 한신을 군 사령관으로 추천했다. 한신은 초반에는 높은 자리에 중용되지 못해서 전투 중 도망을 쳤다. 그는 한신을 쫓아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유방은 “장수들 중 도망간 자들이 많은데 기껏 한신을 쫓아왔단 말이냐”며 화를 냈다. 그는 “한신은 나라안에서 비길 자가 없는 국사무쌍(國士無雙)한 인물이다. 천하를 다루고자 하면 한신이 아니고서는 함께 일을 도모할 사람이 없다”며 중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신은 군 최고사령관이 되어 해하의 결전에서 항우를 오강에서 자살케 만들었다.

유방은 소하를 신임하면서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관중지

漢 법률·제도 정비…뛰어난 처세술의 명재상

준비성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일화다.

후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정의 충실, 민심의 안정, 군량 조달, 보급로 확보에서는 소하를 당할 수 없었다”며 그의 공로를 인정한 바 있다. 논공행상 과정에서 그가 가장 넓은 토지를 하사받고 최고의 종신 자리를 차지했다. 신하의 신분임에도 궁중에서 칼을 차고 신을 신도록 하라박받았다. 다른 신하처럼 종종 걸음으로 다니지 않아도 되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는 항우와의 싸움에서 여러차례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진나라 멸망 후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이 되고 유방에게는 변방인 파·촉·한중 지방을 잘 다스려 무기와 식량을 전선에 제대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약군은 “폐하는 싸움에 패한 후 부하를 잃은 적이 여러번이고, 간신히 몸만 탈출한 적도 세 번이나 된다. 그때마다 소하가 관

방을 잘 다스려 차질없이 전선에 물자를 공급했다. 백성들의 신뢰가 대단했다. 어느날 문제 포승이 찾아와 “지금 한왕은 사람을 보내 승상을 위로했다. 이는 당신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화를 면하려면 친족과 군량을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직언하였다. 포상의 말을 따랐고 유방의 의심이 풀렸다.

한신이 반란죄로 참수되자 공을 인정하여 식음과 지위를 올려주었다. 참모 소평의 말을 듣고 식음을 사양하고 가산을 털어 군수품을 유방에게 보냈다. 유방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

그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매사에 조심스럽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한신과는 달리 한왕조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적이 크고 조정 내외의 신임이 두터워 유방의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군주를 모시는 것을 호랑이를 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그는 절대군주의 시기심이나 의구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유방의 뒤를 이은 혜제가 후임에 대해 묻자 동료인 조참을 추천했다. 소규조수(蕭規曹隨), 소하가 제도를 만들고 조참이 이를 잘 지켰다는 고사다. 소하는 천하의 명재상이었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찰송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